최종상, 윤명희 선교 기도 편지 2022 년 6 월 28 일, 영국 브렌트우드

기도해 주신 어라이즈 전도 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6 월 20-26 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도에서는 저희 부부와 런던의 꿈이있는교회 청년 10 명이 일주일 참석했고, 이영주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4 명이 3-4 일 함께 하여 골드힐(영국)교회를 전도로 지원했습니다. 이영주 목사는 암노스교회개척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졸업생입니다. 2016 년 졸업 후 전도대를 구성하여 동급생 두명의 국제 교회개척도 도왔고, 매년 어라이즈에 10-20 명의 성도들과 함께 참여했고, 여러 해동안 매주 런던 중심에서 거리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힐 교회에서도 담임목사와 부목사 1 명이 일주일, 부목사 2 명과 성도 13 명이 파트타임으로 합류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1,180 가정을 방문했는데, 좋은 대화를 나눈 230 여 집을 재방문할 골드힐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엊그제 주일 예배에 나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온답니다. 윤선교사는 10 여 년 전에 신앙생활을 그만 둔 분에게 전도했는데, 이 교회에 출석 하겠다 하여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골드힐교회가 어라이즈 전도팀을 초청한 것은 금년이 다섯 번째 입니다. 첫 해인 2016 년에는 한명의 성도도 전도를 같이 나가지 않았는데 매년 참여자가 늘어나다가 금년은 17 명이나 참여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국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가정방문 전도지만, 교회성장과 지역사회를 섬기는데는 제일 효과적임을 알아갑니다. 이 교회가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 재복음화의 소망을 봅니다. 골드힐의 스티븐 담임목사는 이미 몇 목회자들에게 이번 어라이즈의 유익을 알렸고 내년에는 꼭 어라이 즈 전도대를 초청하라고 했답니다.




토요일에는 수천 명이 모인 마을축제에서 전도지와 교회 사역 안내지를 돌리며 영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대화를 했지만 주님께서 맺어주신 세 사람이 특별했습니다. 먼저 가가호호 방문 때 만났던 분을 축제에서 몇 차례 다시 만나 더 친해져 교회와 연결해 드렸습니다.



군중 속에서 아이(5 세)를 잃고 발을 구르는 분을 만났습니다. 10-15 분 정도 아이가 안 보여 여러 사람이 찾고 있답니다.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했더니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얼마 안되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사람(흰 옷)은 아이 아빠(맨 왼쪽)에게 기도했는데 찾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앙을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장 의미있는 만남은 이 지역 구청장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골드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담임목사를 만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찾으러 가는데 스티븐 목사는 불과 20 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오른쪽 검은 옷)의 설명을 들은 구청장 (연두색 조끼)은 다음 회의에 와서 이번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고 함께 지역사회를 섬길 길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스티븐 목사는 구청이 지금까지 교회 일에 늘 냉담했는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맨체스터교회 부흥집회



7/1-3 일까지 저희 암노스 졸업생이 맨체스터에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맨체스터에서 힘들게 목회하던 임마누엘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암노스교회개척학교에 2012 년 입학하고 편도 7 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주 다녔던 헌신된 일꾼입니다. 암노스 졸업생으로서는 2014 년 5 월 제 1 호 암노스 개척교회를 리버풀에 세워 두 교회를 목회하다가 얼마전 리버풀 교회는 독립시켰습니다. 맨체스터교회에 주님의 위로와 도전을 나누어 힘을 얻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졸업생들의 사역을 지원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 드림

danieljschae@hanmail.net,

+44 7900 363263; 010 2664 1436 (핸, 카톡)